

## 改革神學이란 무엇인가?

최윤배\*

### - 차례 -

- |                                  |   |
|----------------------------------|---|
| I. 개혁 신학의 뿌리로서 16세기의<br>종교 개혁 신학 | (3) Bucer와 Calvin을 중심으로<br>Strasbourg와 Genève |
| 1. 종교 개혁 신학과 개혁 신학에 대한 오해        | (4)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
| 2. 종교 개혁 운동의 세 가지 형태             | II. 개혁 신학                                     |
| (1) Luther를 중심으로 Wittenberg      | III. 결론                                       |
| (2) Zwingli를 중심으로 Zürich         | * 참고문헌  |

### 〈요약〉

우리는 본 소고에서 '종교 개혁 신학', '개혁 신학', '칼빈 신학' 등 오해된 몇 가지 용어 풀이로부터 시작한다. 개혁 신학의 뿌리를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 특히 개혁파와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에서 찾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종교 개혁 운동을 Luther 중심, Zwingli 중심, Bucer-Calvin 중심 세 가지로 나누고, Bucer와 Calvin을 개혁파와 종교 개혁자들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개혁파와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이 개혁파 정통주의, 개혁파 신정통주의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예정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개혁 신학이란 종교 개혁 신학이나(Luther 신학 등), 개혁파와 종교 개혁 신학이나(M. Bucer, J. Calvin 등의 신학),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나(B.B. Warfield, H. Bavinck, L. Berkhof 등의 신학), 개혁파 신정통주의 신학의(E. Brunner, K. Barth, H. Berkhof 등의 신학)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모든 전통을 성경에 비추어 재질하고, 같고 닮은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개혁 전통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상호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 인문사회학부 신학전공 전임강사

## I. 개혁 신학의 뿌리로서 16세기의 종교 개혁 신학

### 1. 종교 개혁 신학과 개혁 신학에 대한 오해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출판물에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 신학', '칼빈 신학' 등의 용어들이 발견된다. 본격적인 우리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들 용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16세기 종교 개혁 운동이란 Martin Luther를 출발점으로(1517) 유럽 여러 곳에 확산되어 일어났던 종교 운동으로 이해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Luther와 P. Melancthon 등을 비롯해서 Wittenberg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 H. Zwingli와 H. Bullinger 등을 비롯해서 Zürich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 G. Farel과 J. Calvin 등을 비롯해서 Genève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 M. Bucer와 W. Capito 등을 중심으로 Strasbourg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 등이다.

비록 동 유럽에 속하는 체코나 헝가리 등과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 운동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 운동, 남부 유럽의 종교 개혁 운동(이탈리아 및 프랑스 등) 등도 언급되어야겠지만, 우리의 논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지역들을 제외시키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 유럽이나 기타 지역의 종교 개혁 운동은 위에 언급된 서 유럽의 몇몇 지역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Luther 등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보존하려는 신학 및 교회 주류를 '루터주의', '루터파', '루터 교회' 전통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과거의 독일의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Zwingli 등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신학 주류를 '쯔빙글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날의 Basel, Bern, Zürich 등 스위스의 중북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 전통은 종교 개혁 당시 이미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 '계약 신학'(federal theology)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sup>1)</sup>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Strasbourg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과 Genève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을 계승하려는 신학 주류를 '개혁파',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오늘날의 네덜란드와 네덜란드의 식민 지역(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스코틀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우리 나라 등에서 '개혁 교회' 또는 '장로 교회'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

우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즉 종교 개혁 신학과 그들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자처하는 17세기의 정통주의 신학(루터 정통주의, 칼빈 정통주의, 쯔빙글리 정통주의)

1) 현대사회는 물론 일반 고대사회에서는 '약속'이나 '계약'은 형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쌍방적이지만, 성서 신학에서 '계약'(ברית = 'briyth)은 '은혜계약'으로서, 형식은 쌍방적이지만, 내용은 일방적이다. 성서에 기초한 은혜 계약이 행위에 기초한 계약신학(federal theology)으로 변질되어 Zwingli-Bullinger 전통을 중심으로 네덜란드(Coccejus)와 스코틀랜드에서 발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장로교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계약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Calvin 신학은 '계약적'(covenant)이지만, 계약 신학(federal theology)은 아니다.

과 몇몇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영미 유럽은 물론 우리 나라 역시,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있는 두 진영에서 종교 개혁자 자신들의 신학과 그들의 신학에 대한 해석 사이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들면, 한편으로는 L. Berkhof의 교의학이, 다른 편으로는 K. Barth의 교의학이 Calvin 자신의 신학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종교 개혁 신학자들의 신학과 17세기 정통주의 신학과 몇몇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을 면밀히 상호 비교 검토하여 상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작품을 직접 분석하여, 그들 자신의 음성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와 운동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종교 개혁자들의 작품에로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종교 개혁 운동의 세 가지 형태

우리는 위에서 이미 세 가지 종교 개혁 운동 형태에 관해서 말했다. 즉, Wittenberg, Genève-Strasbourg, Zürich를 중심한 종교 개혁 운동이다. 이제 이들 각각의 대표적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Luther를 중심한 Wittenberg

우리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변질시켰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회복시켰던 Luther에게 종교 개혁의 왕관을 돌려 줌으로써 우리의 논의를 시작한다. 만약 지금도 그가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왕관을 받아서 자신을 종교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것이다. 왜냐하면, Luther가 재발견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신 칭의' (= '믿음으로 의로와짐')라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다. Luther의 최대의 관심은 은혜론과 기독론에 기초를 둔 구원론이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낙관적인 자연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로 사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인간의 공로나 기타 자연 지식을 통해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Luther 전통 속에 있는 신학과 Luther 교회는 Luther처럼 '이신 칭의' 교리에 관한 기록을 많이 담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을 더욱 애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Luther가 교회를 조직하거나, 성장시킨다거나, 사회나 국가의 개혁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현재 그가 직면하고 있는 급박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자연 신학에 기초한 구원론 대신에, 은혜론과 기독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경적 구원론을 재건하고, 이 복음의 말씀, 말씀, 말씀<sup>2)</sup> 설교하고, 전파하고, 변증

2) Luther는 어느 종교 개혁자보다도 말씀을 강조했다. 특히, 열광주의자들과 Zwingli에게는 성령, 성령, 성령이 중요했다면, Luther에게는 말씀, 말씀, 말씀이 중요했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Luther가 직면했던 역사적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를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Luther에 대한 편파적 이해가 있곤했다. 가령, Luther는 그의 두 왕국 사상으로 인해서 종교와 정치를 지나치게 분리하여 사회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든지, 개인 구원에 지나치게 관심한 나머지, 교회 조직이나 직제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등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하게 그의 초기 작품부터 말기 작품까지 분석해보면 그의 사상적, 신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Luther의 대적자는 막강한 정치 세력인 Karl V세가 아니라, 오히려 카톨릭 국가들의 비호하에 있는 강력한 종교 세력인 로마 카톨릭 교회, 아니 바로 거짓 복음을 설파하는 로마 교황이었다. 그러므로, Luther는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재건하기보다는 로마의 거짓 복음을 폭로하고, 참 복음의 말씀을 설교해야만 했다. 안정된 가운데서 복음의 설교를 가능케 해 준 국가(정부)를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서 utopia를 쟁취하려는 농민 운동이나 Münster를 중심으로 중세체과 운동에 대한 Luther의 부정적인 시각은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Luther가 농민 운동이나 중세체과 운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Karl V세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하여 Luther에게는 정치 윤리가 부재했다든지, 소극적이라는 결론들은 최근의 많은 Luther 전문 연구가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초기에 Luther의 적대자는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라기 보다는 거짓 복음을 빈조한 로마 교황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Luther가 교회 성장이나 교회 조직에 무관심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변조된 자연 신학에 기초한 구원론을 비판하고, 은혜론과 기독교에 뿌리를 둔 성경적 구원론, 즉 '이신칭의' 진리를 재발견한 Luther를 종교 개혁 신학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다.

## (2) Zwingli를 중심으로 한 Zürich

Zwingli의 지대한 관심은 복음을 통한 국가의 형성과 민족의 대동 단결이었다. 그에게는 '활활한 시민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조국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 사회적, 종교적 상식을 깨뜨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전쟁에 참가했다가 불행히도 전사하게 된다. Zwingli의 전사 문제를 둘러싸고 오늘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어떻게 감히 성직자가 사람을 죽이는 전투에 참전할 수 있을까? 국도가 분단되고, 비기독교 문화에 젖은 우리로서는 종교 지도자의 참전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필자가 네덜란드 유학 시절에 자필 이력서를 박사 학위 논문 제일 뒤에 실어야만 했다. 필자의 자필 이력서에서 병역 복무 기간을 발견한 한 네덜란드 친구가 한국에는 신학생과 목사도 군에 입대하여 군사 훈련을 받고, 일단 유사시에 참전하느냐고 물었다. 필자는 자랑스럽고 당연한 태도로 산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그에게 대답했다. 그 때 그 친구는 필자에게 당혹한 표정을 지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신학생이나 종교 지도자는 군입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입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비무장 활동 분야에서(예를들면 양로원, 병원 등)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Zwingli의 전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의 전사는 안정된 국가(정부) 없이는 교회의 생존과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힘들다는 그의 '국가 교회', '민족 교회'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로 구약 이스라엘의 종교-정치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국가 교회'나 '민족 교회' 개념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Zwingli를 그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의 고려없이 일반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처했던 상황은 일제 침략기에 용감하게 독립 운동을 전개했던 한국 교회의 상황을 방불케한다. 북쪽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과 동쪽에는 친 로마 황제 제국들의(이탈리아 등) 틈바구니 속에서, 험악한 알프스 산지에 흩어져 있는 목장 촌락들을 통합해서 오늘날의 '스위스'라는 독립 국가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Zwingli에게는 절대 절명의 과제였다. 그는 청년 때는 아무 의식 없이 로마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중, 자기와 같은 조국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처절하게 목도한 후, 그 당시 사회에서 당연시사로 여겨졌던 용병 제도를 비판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알프스 산지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주변 국가들의 용병으로 종사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획득된 급료는 목장 공동체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었다. 이상의 예를 통해서, Zwingli 사상에는 선택론 보다는 섭리론이, 교회론 보다는 국가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납득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Zwingli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 윤리 사상은 오늘날의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이나 변증 신학 전통을 이루어 Zürich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Zwingli의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 의식은(마태 복음 6:19-33) 그 당시 유럽 일대를 휩쓸던 역병에 걸렸다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그의 개인 신앙 체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의 고국의 상황은 그의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더욱 강화시켰던 것 같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자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특별히 Zwingli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훌륭한 시민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Zwingli의 사상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 (3) Bucer와 Calvin을 중심한 Strasbourg와 Genève

큰 정치 세력인 Karl V세의 국가 속에 살면서도 은혜론과 기독교에 기초를 둔 구원론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신칭의'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개혁이나 교회 조직에 무관심했던 Luther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조국 '스위스'의 독립을 위해서 "훌륭한 시민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작렬하게 조국을 위해서 전장에서 순국(교)한 Zwingli와는 다른 측면들이 Bucer와 Calvin에게서 발견된다. 즉, Bucer와 Calvin이 활동하던 곳은 Luther가 활동하던 곳과 같이 큰 국가도 아니었고, Zwingli가 활동하던 곳과 같이 산간 지역에 흩어진 목장 촌락들로 구성된 연맹 공동체도 아닌 자유 도시 국가(Strasbourg, Genève)였다. Luther와 Zwingli는 일생 동안 조국에서 일했지만, Bucer와 Calvin은 조국을 떠나 망명 생활을 했다. Bucer는 영국 Cambridge 대학 명예 교수로서 만년을 보내고, Calvin은 Genève에서 그의 활동 말기에 비로소 시민권을 획득했다.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볼 때 Bucer와 Calvin이 살던 두 도시는 Wittenberg와 Zürich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개혁파, 즉 Calvin파는 Luther파와 Zwingli파의 합작품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종교 개혁 당시만해도 Luther와 그의 지지자들은 개혁파(Bucer, Calvin)를 Zwingli파의 지지자

들이라고 비판하고, Zwingli파는 개혁파를 Luther파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여, 개혁파는 Luther파와 Zwingli파 쌍방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성찬론 논쟁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개혁파는 Luther파와 Zwingli파의 단순한 합작품이 아니라, 두 전통의 창조적 수용 발전이라고 보아야될 것 같다. 이 두 전통의 창조적 수용 발전이 자유 도시 국가와 조화를 이루이 개혁파 종교 개혁의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세 가지 종교 개혁 모델의 특징들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비교해보도록하자. 물론 이런 시도는 종교 개혁 운동의 세 모델의 특징들을 너무 단순화시킬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찬론에서 Luther의 경우 기독론에 강조점을 두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각각의 고유한 독립성 보다는 일치성에 관심을 두어 소위 '공재설'을 취하고 있다. Zwingli의 경우 포도즙과 빵의 실제적 효과 보다는 단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회상하거나, 기념하는 차원에서 '상징설'이나 '기념설'에 가깝다. 그러나, Bucer와 Calvin은 성찬의 근거와 내용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Luther의 기독론적 성찬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Luther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만 계신다고 주장하였다(소위 'Extra-Calvinisticum').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보혜사)을 통해서 성찬에 임재하시므로, 그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Luther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방법을 기독론적 차원에서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에 집착하였다면, 개혁파에서는 성령론적으로 생각하였다. Zwingli는 성령의 매개적 성격을 간과하였다면, 개혁파 종교 개혁자들은 성령의 매개적 활동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성령의 신학자'로 불리워지지만, Bucer와 Calvin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Luther의 경우 '이신칭의' 교리의 강조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선호도가 높지만, Bucer와 Calvin에게는 교회론과 목회 신학에 대한 관심으로 에베소서과 그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최초의 목회 신학('Von der wahren Seelsorge', 1538)을 저술한 이가 개혁파의 아버지이며, Calvin의 영적 아버지였던 Bucer라는 사실은 우연 일치가 아닐 것이다. Zwingli의 경우는 선택론보다는 섭리론이 강조되어서 마태 복음을 선호하고 있다.

종교 개혁 운동의 세 가지 모델의 특징의 차이점은 교회와 국가 관계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다. Luther의 경우 교회와 국가는 각각 고유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상호 밀접한 관계의 약화가 우려되고, Zwingli의 경우 국가와 교회가 거의 동일시되어서 각각의 고유성 특히 교회의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Bucer와 Calvin의 경우 교회와 국가는 각각 고유한 기능과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상호 협력-비판 관계에 있다. 즉, 국가는 섭리의 차원에서 사회 안녕 복지와 잘못된 이단을 처벌할 의무를 띄고 있는 반면, 교회는 선택론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 Luther와 Zwingli와는 달리 Bucer와 Calvin에게는 교회의 치리가 교회론과 성화론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Luther

에게는 구원론이, Zwingli에게는 국가론이, Bucer와 Calvin에게는 교회론이 강조점을 얻고 있다.

#### (4)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지나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으며, 역사 방법론에서 가정은 불필요하다고들한다. 가정,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하였더라면, 현재의 조국의 영토가 더 넓어졌을 터인데...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성찬 논쟁은 종식되었을 터인데... 17세기 Luther와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Zwingli와 정통주의가 그들 모두가 종교 개혁의 한 뿌리 속에 있음을 깊이 공감하였더라면, 지나친 교리 논쟁으로 진리를 사변화시키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정과 과거 역사의 오류를 통해서 현재 우리도 범하고 있는 동일한 잘못들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파 전통 속에서 서 있는 우리 나라의 장로 교회는 Luther의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의 자연 신학 사상에 근거한 마리아론, 면죄부 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론과 기독론에 기초한 구원론, 즉 '이신칭의' 복음을 불변의 유산으로 간직할 수 있고, 말씀, 말씀, 말씀을 향한 Luther의 열정을 배울 수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저주로 전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던 Zwingli에게서 민족과 국가의 고난을 용감하게 짊어진 '민족 교회'와 '국가 교회'의 용기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나마 1년 몇 차례 집례되는 성찬식을 Bucer와 Calvin의 교훈에 따라 '영적 임재설'을 따르지 않고, '상징설'을 따르는 장로 교회는 자신의 신앙 뿌리에 대한 무지를 반성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작곡해서 불렀던 고유한 개혁-장로 교회 전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 교회에서 아직도 대부분의 부흥성가로 구성된 찬송가만이 사용되고 있다. 믿음으로 칭의받아 구원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로 선행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의 치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무실해진 것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기독교 윤리의 부재를 낳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같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 개혁 운동 형태를 성령의 은사와 활동의 다양성으로 간주하면서도, 우리의 형편에 적절한 종교 개혁 운동 모델을 도입 적용하면서도, Luther가 재발견한 은혜론과 기독론에 기초한 구원론, 즉 '이신 칭의'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놓쳐서는 안되겠다.

## II. 개혁 신학

올바른 개혁 신학의 출발점은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종교 개혁 신학에 대한 이해였다. 특별히 개혁파와 종교 개혁자들(Bucer, Calvin)에 대한 이해였다. 그러나, 종교 개혁 신학이나, 개혁파와 종교 개혁 신학이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나, 개혁파 신정통주의 신학 자체가 개혁 신학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모든 신학 전통들을 분석 검토하여 잘 채질되고, 정선된 것이 바로 개혁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개혁파와 종교 개혁자들(Bucer, Calvin), 개혁파 정통주의자들(H. Bavinck, H. Heppel, L. Berkhof, B.B. Warfield 등), 개혁파 신정통주의자들(K. Barth, H. Berkhof 등) 중에서 각각 한 명씩을 선택하고, 한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개혁

신학의 방향 제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예정론이 Calvin 자신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는지의 여부는 아직도 Calvin 연구가들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uther 정통주의와 Zwingli 정통주의와는 달리, Calvin 정통주의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 같다. 그러므로, 먼저 예정론을 중심으로 세 신학자들 (Calvin, L. Berkhof, Barth)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예정론이 각각의 신학자들의 교의학에서 어떤 부분(Loci)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예정론이 Berkhof에게는 신론에, Barth에게는 기독교론에, 그리고 Calvin에게는 성령론(교회론, 구원론)에 위치해 있다. Berkhof에게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어떤 사람들은 선택(천국)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유기(지옥)하신다. 선택과 유기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어서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인상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자칭 잔인하시고 무서운 분으로 이해되고,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소지가 있는 것 같다. Barth도 이중 예정을 주장하지만, Berkhof의 이중 예정의 내용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즉, Barth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되는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유기되는 자가 된다. Barth에게는 Berkhof에게 처럼 인류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즉 선택과 유기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가 되기 때문이다. Barth에게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동일선 상에 놓여 있다.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그들 사이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차이이다. Barth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언젠가는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Calvin의 예정론은 A. Pighius, J. Boiesec 등과 논쟁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었는데, 특히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그의 예정론은 기독교 강요 제 III 권 성령론 부분,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구원론(xxi 장) 부분에서 취급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Calvin의 예정론은 앞에서 언급한 두 신학자의 예정론과 성격을 달리한다. Calvin의 경우 모든 기독교 지식(교리, 진리)은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이고, 목회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인 예정론도 예외일 수 없다. Calvin은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예정 교리를 착안하거나 고안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였다. 동일한 설교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십사리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두 가지 반응을 보고, Calvin은 그의 설교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선택의 영, 성령의 활동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성령께서 그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듣는 이의 닫힌 귀를 영적으로 열어 주시고, 감긴 눈을 뜨게하시고, 강박한 마음을 녹여 주실 때, 복음을 듣고, 보고, 깨닫고, 느끼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Calvin은 자신이 얻은 구원, 특히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의 구원이 자신의 열심이나, 선행 등에 근거를 두었다면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비롯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재도 성화(성결)의 은혜를 계속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복음 선포의 상황, 선택의 영, 즉 성령의 현재적 활동, 구원의 확실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 대해 말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 전 선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Calvin의 관심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안에서의 선택이지, 유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Berkhof는 선택과 유기에 모두 관심하므로써, 선택과 유기를 평행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Calvin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Calvin은 성경의 메시지대로 유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도 역시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결정'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 대한 유기(지옥)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Barth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Berkhof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어 하나님은 자칫 무서운 분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고, Barth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로 하나님의 공의가 약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Calvin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에 관심하면서도, 하나님의 자유와 공의의 심판으로서의 무서운 유기에로의 결정을 말하고 있다. Calvin은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측면에서 보았지만, 유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유와 공의로써 심판 및 인간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Berkhof에게는 자칫 이중 예정론은 공포와 진율의 칼빈주의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책임과 교회의 장도 없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도 없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선택과 유기를 행하셨다는 인상을 받게된다. Barth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좋으신 분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유기되거나, 지옥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종교 개혁 신학 특히 개혁 신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의 메시지에 충실하는 것이라면, 예정론에 대한 위의 세 가지 견해 중에서 필자가 보기에는 Calvin의 견해가 성경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 III. 결론

전통의 발전 과정에서 '연속성은 단순한 재생산(반복)으로, 불연속성은 단순한 변화로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sup>3)</sup> 발전과 변화는 '살아있는 전통'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한다. 개혁 전통은 '개혁을 통한 개혁'(reformanda quia reformata)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개혁 전통은 과거의 것을 맹목적으로 반복하는 죽은 전통주의(바리새파, 로마카톨릭주의 등)도 아니고, 과거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반전통주의(제세레파 등)도 아니다.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대한 로마 카톨릭과 개혁 신학의 기본 입장이 가끔 오해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전자에는 전통만이 존재하고, 후자에는 성경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3) R.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I: Prolegomena to Theology, Grand Rapids 1987, p. 21.

큰 오해다.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전통(교회)의 권위를 동등시하는 것이 문제다. 종교 개혁은 당시의 재세례파들처럼 성경만을 선택하여 모든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 성경의 권위하에 있도록 했고, 그런 한에서만 그 전통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경에 일치한다면, 그는 로마 교황 보다도, 모든 교회 회의들 보다도, 모든 교부들 보다도 위에 서 있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전통도 항상 해석의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 관건은 성령의 권위와 신앙의 원리다. 재세례파들과 독자 영감주의자들은 성경의 해석의 과제를 무시하고 문자주의에 빠졌다. 종교 개혁자들은 대체로 후기로 갈수록 교부들의 문헌이나, 교회 회의들의 기록들을 그들의 진리 진술을 위해서 많이 인용했다. 이것은 교부들이나 교회 회의들이 성경보다도 성령보다도 더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성경의 내용은 물론 교부들과 교회 회의들의 결정과 일치하고 있음을 반대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물론 살아있는 교회 전통조차도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전통이 살아 있는 전통이 되려면 성령과 신앙의 도움으로 성경의 빛아래서 계속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죽은 전통주의에 빠지게 된다.

"루터와 칼뱅의 경우조차도 '교회의 스승의 기능'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스승'에 대한 열심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예배를 몰아낼 수 없다. Barth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물론 나는 개혁 전통에서 있다. 그러나, Calvin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교회와 세계에 오직 한 분 주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나는 Calvin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고 한다.'<sup>4)</sup> '개혁 전통은 유일한 기독교 전통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개혁 전통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교회가 살아 오면서 새로운 세대마다 그 신앙과 삶을 전수하던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sup>5)</sup>

우리는 '종교 개혁 신학', '개혁 신학', '칼뱅 신학' 등 오해된 몇 가지 용어 풀이로부터 이 글을 시작했다. 개혁 신학의 뿌리를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 특히 개혁과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종교 개혁 운동을 Luther 중심, Zwingli 중심, Bucer-Calvin 중심 세 가지로 나누고, Bucer와 Calvin을 개혁과 종교 개혁자들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개혁과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이 개혁과 정통주의, 개혁과 신정통주의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예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혁 신학이란 종교 개혁 신학이나, 개혁과 종교 개혁 신학이나, 개혁과 정통주의 신학이나, 개혁과 신정통주의 신학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모든 전통을 성경에 비추어 재질하고, 갖고 뒤아서 오늘의 시대에 생명을 주는 신학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개혁 전통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상호 비교하는 역사 신학 작업과 동시에 건전한 성서 주석 및 현 사회적, 교회적 상황 분석 작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4) J.H.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1977, pp. 21f.

5) J.H. Leith, *op. cit.*, p. 31.

※ 참고문헌

1. 종교 개혁 신학

K. Aland, Die Reformatoren: Luther - Melanchthon - Zwingli - Calvin mit einem Nachwort zur Reformationsgeschichte, Gütersloh 19864.

R. Stauffer, Was weiß ich über die Reformation?, Zürich 1971.

2. 개혁 교의학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Michigan 1938.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IV, Kampen 1928-1930.

R.H. Bremmer, Bavinck als dogmaticus, Kampen 1961.

J. Faber, Essays in Reformed Doctrine 1990.

H.L. Heppel,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Her. E. Bizer), Neukirchen 1935 (1861).

A.G. Honig, Handboek van d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1938.

A. Lecerf (Docteur en théologie professeur à la Faculté libre de théologie protestante de Paris), Introduction à la dogmatique réformée I: De la nature de la connaissance religieuse, Paris 1931; II: Du fondement et de la spécification de la connaissance religieuse, Paris 1938.

J.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 Way of Being the Christian Community, Atlanta 1978.

W. Niesel, Das Evangelium und die Kirchen: Ein Lehrbuch der Symbolik, Neukirchen 1960.

T.F. Torrance, Theology in Reconstruction, London 1965.

O. Weber, Grundlagen der Dogmatik, Neukirchen I(1955), II(1962).

O. Weber, Karl Barths kirchliche Dogmatik, Neukirchen 1958.

K. Barth,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Zürich 1963.

G.C. Berkouwer, Dogmatische studiën, Kampen 1949-1972.

H. Berkhof, Christelijk geloof, Nijkerk 19906.

Yoon-Bae Choi, De verhouding tuss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 Leiden 1996.

A.A. van Ruler, Theologisch werk I-VI, Nijkerk 1969-1973.

J. van Genderen/W.H.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1992.